

자동차도 '양극화'

善戰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차만 잘 팔리고 작은 차들은 맥을 못 추는 '대고소저(大高小低)'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중형차 이상 승용차 판매량은 15만 85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9780대보다 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형차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대형차는 신형 제네시스 등의 인기에 힘입어 이 기간 2만4591대가 팔려 지난해 동기보다 57.5%나 급증했다. 중형 차급도 신형 쏘나타 출시 등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8만348대가 팔렸다.

반면 엑센트, 프라이드, 아베오 등이 포진한 소형차는 1만5752대가 팔리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급감했다.

아반떼, i30, K3, 크루즈 등이 포함된 준중형차도 4.9% 감소한 8만3500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 5사의 판매실적이 이 기간 5.6% 증가한 상황이라서 소형차급 판매 하락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형차급은 세계 경기침체와 고유가 영향으로 2011년까지 급증하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더니 올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그나마 경차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총 7만9473대가 판매돼 '작은 차'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형차 중에서 신차 출시가 없었던 데다, 요즘 20~30대 소비자들은 첫차 구매 때부터 중형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 등의 구입혜택이 있지만, 소형차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큰 차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 중형차와 경차 사이에 낀 소형차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차들이 소형차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소형차 판매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연합뉴스



'프라이드'

20~30대 소비자들 첫 구매부터 중형차 선호
1~5월 판매량 15만8574대...전년비 6% 늘어
소형차, 신차 출시 없고 혜택 부족...18% 급감

苦戰



'제네시스'

친환경 자동차 시대 온다

각종 세제 혜택...국내 인증 모델, 5년 새 3종 → 24종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정부가 공식 인증한 친환경차 모델 수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BMW의 전기차 'i3'를 친환경차 요건을 채운 차종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관련 규정과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국내 친환경차 모델은 하이브리드차 19종과 전기차 5종 등 총 24종이 됐다.

국내 시장에서는 친환경차를 표방한 모델이라도 정부 고시에 포함돼야 취득세 면제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 효율 등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연료와 배기량 별 연비 기준이 있다. 일례로 배기량 1000~1600cc인 가솔린 하이브리드차는 연비가 20.6km/ℓ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1kWh라는 전력량으로 차가 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고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측정방법에 따라 82km 또는 92km를 넘어야 요건을 갖춘다. 이런 규정에 맞춰 첫 인증을 받은 친환경차가 국내에 등장한 건 2009년 6월이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 3종이 '정부 고시 친환경차 1호'였다.

이후 도요타의 간판 하이브리드 차종인 '프리오스'와 현대기아차의 '쏘나타·K5 하이브리드' 등이 포함되면서 국내 친환경차 인증 모델의 저변은 넓어졌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처음 정부 고시 모델이 나왔다. 기아차의 '레이 전기차'와 르노삼성차의 'SM3 ZE'가 첫 인증 모델이었다.

친환경차 고시 제도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인증 모델은 3종에서 24종으로 8배나 늘었다. 친환경차를 판매하는 브랜드 수도 3개에서 9개로 다양해졌고 차급 역시 경차에서부터 대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모두 아우르는 범위로 넓어졌다.

2009년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쳐 7312대로 출발했던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3만대에 육박하는 2만 9668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美서 '승승장구'

신형 제네시스 효과...5월 2622대 판매·점유율 3%P ↑

현대·기아차가 신형 제네시스를 앞세워 미국의 대형 고급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싼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 대형 고급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기아차는 미국 대형 고급차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2622대를 판매했다.

이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5월(7.0%)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9%를 기록했다. 특히 5.8%를 나타낸 4월보다는 3.1%포인트가 경총 뛰었다. 벤츠와 아우디, BMW, 렉서스 등 주요 고급 브랜드들이 자사의 대표 모델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미 대형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신형 제네시스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월평균 900여 대 판매에 그쳤던 제네시스는 신형 모델이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2071대가 팔려 점유율 7.0%를 기록했다. 6168대가 팔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점유율 21.0%로 1위였고 BMW 5시리즈(16.2%), 캐딜락 CTS(9.9%),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7.4%), 아우디 A6·S6(7.3%), 제네시스 순이었다. 에쿠스와 K9은 각각 324대와 227대가 팔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상승에 기여했다.

현대차는 특히 최근 울산공장의 증산 함의로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네시스의 물량 확보가 더욱 원활해지면서 앞으로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오래 타기

4 유사연료 문제점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석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유사휘발유, 부식성 높아 엔진 수명 단축

유사경유, 출력 저하·시동 꺼짐 유발

◇유사 휘발유

유사휘발유에 주로 사용되는 톨루엔은 용해성이 높아 고무류의 수명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고무류 부품을 팽창시키며, 부식성 또한 높아 연료라인 및 엔진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유사휘발유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정품 휘발유보다 20~60%가 많아 장시간 사용시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유사 경유

황 함량이 높다. 이런 고유황 성분의 연료사용은 촉매를 변질시켜 유해배기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 또 윤활성이 낮아 연료장치에 고압펌프 등 정밀부품의 내구성 문제를 일으키며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 등의 내구성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사 경유는 밀도가 낮아 발열량 차이에 따른 출력저하를 발생시키고, 수분함량이 높아 연료장치계의 부식 및 시동꺼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섭 과장>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옷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주류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소리큐 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남평주 남평동 소리큐보청기 화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